

일제강점기 임상한의서 『제세보감』 연구 - 『방약합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구현희
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n Clinical Korean Medicine Book 『JeSeBoGam』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 with Focus on the Comparison with 『BangYakHapPyeon』 -

Hyun-Hee Ku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JeSeBoGam (濟世寶鑑)』 was a medical document authored by Moon Gi-h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33, and the author acted as a Korean medicine doctor, an acupuncturist, a medicine practitioner and an apothecary. Since its first publication in 1933, it has been published three times in 1966 and 1975,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liberation period. 『JeSeBoGam』 is largely divided into Preface part, 『List of drugs according to symptoms [隨症用藥目錄]』, 『JeSeBoGam-Gap (濟世寶鑑甲)』, and the Appendix includes 『Key points for diagnosing the disease [察病要訣]』, 『Key points of acupuncture and pulse [脈訣]』, 『Key point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針灸訣]』 in the back of the book. In 1933, there are attached exam books and license application forms related to Korean medicine doctor and pharmacist, so strict regulations on them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can be confirmed. 『JeSeBoGam-Gap』 contains 208 prescriptions from 143 prescriptions taken from 『BangYakHapPyeon』 and 65 prescriptions from other books. It divided into Gap (甲)·Eul (乙)·Byung (丙)·Jung (丁). These prescriptions were placed in 『List of drugs according to symptoms [隨症用藥目錄]』 according to a symptom 1,286 times. Considerable parts of organization and prescription drug composition of 『JeSeBoGam』 are closely related with 『BangYakHapPyeon』, but there were adjustments in all medicinal ingredients and capacity for the rest of them except 23 prescription drugs. Compared to 『BangYakHapPyeon』, there was a tendency to substitute the basic prescription in 『JeSeBoGam』 for prescriptions used for the same disease. Though only 65 prescriptions were taken from books other than 『BangYakHapPyeon』, 575 times were reflected in 『List of drugs according to symptoms [隨症用藥目錄]』, and the rate of utilization is high compared with the number of prescriptions of 『BangYakHapPyeon』. It is thought that the circumstances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limits in medicinal ingredients composition du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a patient's condition and the treatment method might have an influence on the author's drug use tendency. 『JeSeBoGam』 is similar to 『BangYakHapPyeon』 in composition, but it is a new practical medical book in which the author's clinical records are concentrated.

Key words : JeSeBoGam, Moon Gi-ho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Clinical Korean Medicine Book, BangYakHapPyeon

I. 서론

『제세보감』이 출간되었던 1930-40년대는 의과학적으로

전통의학 회귀론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일제의 식민정책이 날로 가혹해져갈 즈음 민족의식이 고양되어 자주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한의계도 부흥의 노력이 있었다. 안으로는 한의학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한의사의 지위 향상에 힘썼으며 한의학교육기관의 설치 및 한의학의 존속의 방도를 강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¹⁾ 김영훈, 장기무가 1935년 『동양의약』에 기고한 글 「한방의학부흥론에 대하여」

접수 ▶ 2016년 11월 07일 수정 ▶ 2016년 11월 30일 채택 ▶ 2016년 11월 30일
본고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고문헌 기반 『한의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K16670)
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신저자 ▶ 구현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042-868-9482 E-mail : ku0327@kiom.re.kr

1) 정지훈. 「한의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한국사학회지. 2001;17(1):207-215 참조.

를 보면 “조선의 현실이 인구에 비해 턱없이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 고급스런 시설을 갖춘 현대식 병원에서의 진료가 좋은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조선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시급한 조선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방의약이 중요하다.”²⁾고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했다. 당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집계된 1914년도 한해 공식 등록 의사 수는 5,827명으로, 공표인구 약 1,562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의원 수는 인구 1만 명당 평균 3.75명 정도의 수준에 불과 했다.³⁾ 이런 시기에 궁중에서 활동했던 어의들의 사회활동, 민간에 숨어있던 의가(醫家)들의 의서출판, 학술잡지의 간행, 한의사 모임의 활성화 등으로 한의학은 학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게 된다. 이 시기 한의계에서 많이 연구되었던 서적은 『동의보감』·『방약합편』·『상한론』·『의학입문』 등이 있으며⁴⁾ 1933년에 출간된 『제세보감』은 『방약합편』의 편제를 모티브로 하여 출간된 실용적인 임상한의서이다.

지금까지 『제세보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07년 「고의서산책 346호⁵⁾」 기고 글에 서문과 간략 해제가 실려 있고, 2006년에 「의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살펴 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⁶⁾과 2011년 『근현대 한의학 인물실록』⁷⁾에서 서적과 인물을 소개하면서 『제세보감』이 일제강점기의 중요한 임상서임을 표명하였다. 『대동문묘창건시집(大同文廟創建詩集)』⁸⁾에 그의 연보가 상세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문생들이 기록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저자의 삶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세보감』 서문에서 그가 ‘補於醫學界’ 즉, 의학계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것과 같이 문하에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여러 차례 송덕비에 저자의 이름이 새겨졌으며, 신문기사에 30년간 의료인으로서 빈자를 무료로 치료한 ‘살아있는 부처’⁹⁾로 이름이 실릴 만큼 ‘제세(濟世)’에 뜻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제세보감』이 일제강점기와 해방의 시기를 거치면서 3차례 출간이 진행된 것 역시 세간의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되며 그 가

치를 인정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제세보감』의 편제 및 구성을 살피고 내용적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제세보감』과 『방약합편』의 방제를 비교·분석하여 『제세보감』에 제시된 방제구성이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본서가 지니는 의학사적 의의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저자가 주체적으로 추가한 방제와 주로 가감하였던 본초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제세보감』의 출간

『제세보감』은 1933년 제세당약방 출판소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초간본은 1권 1책의 목판본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판권지에 소화 8년(1933년) 발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작권 발행인은 문기홍(文基洪), 주소는 경상남도 울산군 울산읍 옥교(玉橋)동 160번지로 적혀있다. 이후 두 번의 출간이 있었는데 행림서원에서 간행한 1966년본(국립중앙도서관 1본, 대구가톨릭대 도서관 2본, 덕성여대 도서관, 동국대 도서관 1본 소장)과 다시 행림서원에서 발행한 1975년본(원광대 도서관 소장 1본)이다. 경희대도서관에 소장된 출판년불명의 『제세보감』 2본은 행림서원 출판인 것으로 보아 1966년이나 1975년 간본일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사항은 초간본(1933년) 70장, 1966년본 62장, 1975년본 63장이고, 크기는 26 cm로 거의 동일하다. 초간본과 이후의 간본이 7-8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제세보감』 초간본 말미에 붙어 있는 ‘수험서 및 각종 양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1933년 처음 간행 시에는 첨부하였다가, 1966년, 1975년 출간시에는 광복 이후 제도의 변화로 필요가 없어지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2) (1935.01.01.) “한방의학부흥론에 대하여” 東洋醫藥 제1호

3)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파주:들녘. 2014:785.

4) 김남일. 「의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대한의사학회. 2006:15(1):77.

5) (2007.07.27.) “제세보감 - 頌德碑에 기록된 仁術遍歷” 민족의학신문 623호. 고의서산책 346호

6) 김남일. 「의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대한의사학회. 2006:15(1):77.

7)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 실록』. 파주:들녘. 2011.

8) 문기홍. 『大同文廟創建詩集』. 발행자·발행년 미상.

9) (1924.04.08.) “자선 활불(活佛)의 문의생(文醫生)” 每日申報 04면 04단 “경남부산부 부평정 제세당주인 문기홍씨는 원래 유명한 한의로서 30년간에 수천의 인명을 구제하였으니 빈궁한 환자에게는 침구 및 진료를 무료로 시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칭하되 활불이 제세라 하며 그 문인이 제세당의 간판을 계기하고 각자 출의하여 문씨의 위대한 의술과 자비한 덕행을 영세 유전하고자 하는 성심으로 부산부 부평정 또는 동래군 남면 가로에 석비를 세우고 문씨의 공덕을 칭송한다더라”

Ⅲ. 『제세보감』의 편제와 내용

1. 서문부

『제세보감』 서문부에는 서문(序文)보다 앞서 「제세당문선생연구방(濟世堂文先生研究方)」과 「경상9군 제세당 수비처급비문(慶尙九郡 濟世堂 堅碑處及碑文)」 그리고 「제세당문선생행략(濟世堂文先生行略)」이 실려 있다. 먼저 「제세당문선생연구방」을 보면 우측에는 문기홍이 관허를 얻었던 의생(醫生)·침술사(鍼術師)·제약사(製藥士)·약종상(藥種商) 면허와 ‘저술(著述) 제세보감(濟世寶鑑)’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좌측에는 「제세당비석등사도(濟世堂碑石謄寫圖)」가 비석의 모양대로 그려져 있다. 비석에는 중앙에 ‘제세당문선생기홍 영세불망비(濟世堂 文先生基洪 永世不忘碑)’라는 문구 주변으로 문기홍의 업적을 기리는 4언구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이 문구는 울산향교에 세워진 비문으로 조성덕이 쓴 것이다. 비석등사도 주위에는 12명의 문생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¹⁰⁾ 한 면을 넘기면 「경상9군 제세당 수비처급비문」이 있는데, 1918년 이후로 포항읍, 감포항, 경주석굴암, 울산읍, 양산통도사, 동래좌수영, 마산봉화령, 칠원구산에 이르기까지 9차례에 걸쳐 제세당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곳곳에 세워진 비석의 문구이다. 다음장에는 소화 7년(1932년)에 기록된 「제세당문선생행략」¹¹⁾이 있다. 내용을 간략히 들자면 문기홍은 강성군 문익점의 후예로 의학을 전공하였고, 치료로 세상을 구제하여 곳곳에 이름이 나 문생들이 몰려들고 비석이 세워졌으며, 『제세보감』을 저술하고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및 선성묘 직원 겸 강사(先聖廟直員兼講師)를 역임했다는 내용이다. 그 뒤로 문기홍이 쓴 「제세보감서(濟世寶鑑序)」와 문생들이 쓴 「소지(小識)」 그리고 1932년 11월 6일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등서(記事謄書)」가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스스로 쓴 서문에는 『제세보감』에 의학 경험을 담았으며 침구법을 덧붙였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제세보감』 저술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다.

2. 본문부

『제세보감』의 본문부는 크게 「수증용약목록(隨症用藥目錄)」과 「제세보감갑(濟世寶鑑甲)」의 방제 구성으로 나뉘어 있다.

1) 「수증용약목록(隨症用藥目錄)」

「수증용약목록」은 [풍(風)]에서 부터 [소아(小兒)]까지 54개 조목, 613개 세부증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증 순서만 조금씩 달리 했을 뿐 『방약합편(方藥合編)·활투침선(活套針線)』의 각 조목과 세부증상이 『방약합편』과 거의 일치한다. 조목은 다음과 같다.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虛勞, 霍亂, 嘔吐, 咳嗽, 痰喘, 積聚, 浮腫, 脹滿, 消渴, 黃疸, 瘧疾, 邪祟, 身形, 精, 氣, 神, 血, 夢, 聲音, 津液, 痰飲, 蟲, 小便, 大便,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背, 胛, 乳, 腹, 腰, 脅, 皮, 手, 足, 前陰, 後陰, 癰疽, 諸瘡, 婦人, 小兒”

증상마다 각각 「제세보감갑(濟世寶鑑甲)」에 수록된 208개의 방제들이 1286건 배치되어 있고, 방제 구성을 찾아보기 쉽도록 방제명 뒤에 四物湯(丁一一)의 형식으로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각 조목 마지막에는 『방약합편·활투침선』과 마찬가지로 통치방(痛治方)을 실어 두었다. 세부증상 일부는 삭제하였고, 반대로 風-大風, 背-龜背, 脅-通治, 小兒-龜背 항목은 추가되었다. 『방약합편』에는 구배(龜背) 항목이 없다.

2) 「제세보감갑(濟世寶鑑甲)」

「제세보감갑」은 『방약합편·활투처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갑(甲)·을(乙)·병(丙)·정(丁)으로 통(統)을 나누고 각각 50여개의 방제를 수록하고 있다. 서적 앞머리 목차에는 본문의 「제세보감갑」이라는 제목 대신 1. 처방(處方)-처방수백종(處方數百種), 1. 침법(針法)-칠백여혈(七百餘穴), 1. 구법(灸法)-칠백여혈(七百餘穴)으로 제시해 놓았다.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0) 문기홍 저. 『제세보감』. 「제세당문선생기홍 영년불망비」. “門生 金正鎬, 劉公珍, 金秀經, 李雨成, 金壽良, 李龍洙, 金容澤, 李元弼, 金萬千, 金正來, 金實根, 韓正鎬.”

11) 문기홍 저. 구현희, 오준호 역. 『국역 제세보감』. 「제세당 문선생 행략」 e-book. 2016. (<https://www.gitbook.com/book/kmongoing/jese/details>)

표 1. 『제세보감·제세보감갑』방제구성 및 부가기록

통(統)	방제범위(방제개수)	각통 말미에 기재된 부가 기록
갑통	제세환 -사백산(50)	(甲51-52)임신금기·옷의 독
을통	오약순기산 -자상환(52)	없음
병통	가미거풍산 -수점산(52)	(丙53-57)반하국·우담남성·경분·신국·숙지황을 만드는 방법
정통	가미도담탕 -소대환(54)	(丁55-57)채소독·옷의 독·부자에 습지를 싸서 굽는 방법

「제세보감갑」은 방제마다 각각 구성약재·주치(主治)·가감방·제조·복용법·침구법이 소개되어 있다. 『방약합편』은 「의방촬투」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¹²⁾ 「활투처방」 방제를 상·중·하통으로 나누고 각각 보익(補益)·화해(和解)·공하(攻下)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세보감갑」도 4단 구성으로 형태는 유사해 보이나 갑·을·병·정통에 분류된 방제들이 『방약합편』 상·중·하에 분류된 방제 특성과 관계없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관계 짓기는 어렵다. 방제학적 분류로 접근을 해보아도 해표제(解表劑)·사하제(瀉下劑)·화해제(和解劑)·청열제(淸熱劑)·거서제(祛暑劑)·보익제(補益劑)가 갑·을·병·정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제세보감갑」 본문이 갑·을·병·정통 모두 같은 위치에서 끝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히려 가독성을 위해 단순히 4단 구성으로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 『방약합편』 상·중·하통은 보익·화해·공하로 나누면서 각 통의 방제 개수와 끝나는 위치가 상당히 달라졌다.

가감방 부분에는 증상 및 계절에 따라 약재를 가감하여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병증에 따라 약재 가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7] 오령산처럼 ‘서열에 계지를 빼고 인삼을 더하면 춘택탕’, ‘상한열에는 진사 5푼을 더하면 진사오령산’, ‘열설에 계지를 빼면 사령산’, ‘음허에 사군자탕과 합하면 군령탕’, ‘습사에 평위산을 합하면 위령산’ 등 기본방에서 파생된 가감방을 소개하고 있다. [정11] 방제인 사물탕의 경우에도 가감의 설명과 함께 단삼사물탕·사륙탕·육미지황탕·팔물탕·팔진탕·십전대보탕이 소개되어 있고 위 방제들은 「수증용약목록」에 모두 [정11]로 위치를 기재하고 있다. 기본방이 같은 방제인 경우 [정11]처럼 한 곳에 모아 기재

함으로써 기본방과 변방(變方)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이 쉽도록 소개해놓았다.

「제세보감갑」에 수록된 208개의 방제마다 각각의 침구법이 대입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병증에 따라 침구법을 기재해 놓은 경우는 다수 있지만 『제세보감』처럼 방제명과 침구법이 1대 1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갑·을·병·정통의 방제가 끝나는 여분의 지면에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방약합편』 부록에 실려 있는 내용을 추려 임신금기, 수은·칠·채소독 등의 치료법, 우담남성·경분·신국 제조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3. 부록 「찰병요결(察病要訣)」·「맥결(脈訣)」·「침구결(針灸訣)」

1) 「찰병요결(察病要訣)」

본래 저자미상의 『찰병요결』은 사본류가 제법 많은 편인데, 현전 판본 중 가장 내용이 완전한 것으로는 대구 재전당 서포에서 1930년 발행한 신식연화자본이 있다.¹³⁾ 『제세보감·찰병요결』은 『찰병요결·찰병요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듯 보이나, 중간에 순서가 바뀌거나 『찰병요결』(1930년 재전당서포본)에 없는 대목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부분은 생략도 많아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제세보감·찰병요결』의 세부 조목인 「오장총속론(五臟總屬論)」은 『찰병요결·전신부분록(全身部分錄)』에서 일부 발췌 하였으나 이 역시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는 『찰병요결』이 사본류가 많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자의 견해가 가미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맥결(脈訣)」

「맥결」은 『의문보감·맥결』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의문보감』에는 95종의 「인용서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맥결」은 『빈호맥학』을 기본으로 『찬도맥결』 및 여러 의가의 견해를 참고한 것이다.¹⁴⁾ 『제세보감·맥결』에는 그 중에서 27맥·7진(七診)·9후(九候)·장부본맥(臟腑本脈)·

12) 황도연. 『방약합편』. 「의방촬투 서문」 「초보자는 기존 서적에 나온 처방을 쓰기가 어렵겠기에, 처방을 다시 분류한 다음 이를 세 가지 계통으로 하여 보익·화해·공벌의 세 가지 품성을 알게 하고, 별도로 운용법을 달아서, 배우는 이가 책을 펴 보면 다 치료할 수 있게 하였다. 初不可援例, 分門次爲三統, 以見補·和·攻之三品別, 爲鍼線, 使學者, 開卷而該兼治.”

13) (2006.10.13.) “찰병요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 309호.

14) 한국한의학회연구원. “의문보감 해제정보” 한의고전명저총서(2016.09)

흉맥체상(凶脉體狀)·부인의 경맥(婦人經脉)·자식을 구하는 맥(求嗣脉)·임신맥(妊孕脉)·변남녀(辨男女)·출산맥(臨産脉)·산후맥(産後脉)·옹저맥(癰疽脉)·남녀노맥(男女老脉)을 싣고 있다.

3) 「침구결(針灸訣)」

『제세보감·침구결』에는 <영구팔법비등침도(靈龜取法飛騰針圖)>·<사암유주옥십사혈(舍岩流注六十四穴)>·<치병요혈(治病要穴)>¹⁵⁾이 기재되어 있다. <영구팔법비등침도>는 『침구대성』에서, <사암유주옥십사혈>은 『사암도인침법요결』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치병요혈>은 『의학입문(1575년)』과 『침구대성(1601년)』에 모두 수록되어 있어 인용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세보감』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영구팔법비등침도>가 『침구대성』에 있는 점과 문장의 유사성¹⁶⁾을 봤을 때 『침구대성』과 더 가깝다. 또한 『침구대성』에서 “凡五臟瘡, 灸五臟俞”가 들어갈 위치를 [의희(諷諱)]에서 [방광수(膀胱俞)]로 옮겨 『의학입문』의 오류를 잡아놓았는데, 『제세보감』에서 이를 따르고 있으므로 『침구대성』을 인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수험서 및 각종 양식

1) 의생·약종상 수험서

수험서와 관련된 목적은 「서양약용량(西洋藥用量)」, 「서약각종주사침법(西藥各種注射鍼法)」, 「약종상시험식(藥種商試驗式)」으로 본문에서는 제목이 조금 다르다.

「서양약용량」, 「서약각종주사침법」은 『일본약국방(日本藥局方)』이라는 일본 서적에서 발췌된 것이다. 1910년 의생규칙이 반포 이후 출간된 『신의학요감』에도 의생면허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내용 일부를 가져와 실어 둔 것을 보면 『일본약국방』은 의생 및 약종상 시험의 기본서 중 하나였을 것이다. 「서양약용량」은 『일본약국방·대인에 대한 약품 1회 및 1일 극량(大人ニ對スル藥品一回及一日ノ極量)』¹⁷⁾과 표의 형태가 일치한다. 다만 일본어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아니고 서양 약품의 명칭을 한문이나 일본어 발음 표기, 국문

을 섞어서 기재하고 있다. 약품별로 1회 최대복용량·1일 최대복용량이 기록되어 있다. 「서약각종주사침법」은 피하에 주사하는 서약과 주치에 따른 주사량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 약품 목록·약품 분량·증류수 분량·1회 주사량·주치(主治)로 구성되어 있다. 「약종상시험식」에는 시험과목 중 일부만 수록해 두었다. 당시 약종상이 되려면 조선약학교에서 별과(別科)로 분석학, 제약화학, 생약학, 위생화학, 약품감정, 약국방, 조제학, 약제학 등을 배워야 했는데, 『제세보감』에는 주의를 요하는 독약(毒藥)·극약(劇藥)·극성약품(劇性藥品)의 내용만 싣고 있다. 모두 명칭·이명·기본·주성분·용량을 기준으로 표가 그려져 있다.

2) 각종 양식

양식으로는 「의생원서식(醫生願書式)」, 「증명서식(證明書式)」, 「약종상 허가원(藥種商許可願)」, 「의생영업 지역변경 허가원(醫生營業 地域變更許可願)」, 「의생진료 출장소설치계(醫生診療 出張所設置届)」가 있다. 내용을 보면 증명서식에 따라 개업장소나 면허기간 등을 기입하고 관련 이력서나 호적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양식이니 만큼 일본어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총독 ○○○ 귀하(朝鮮總督 某 殿)’라고 수취인 기재 방식이 안내되어 있다. 의생이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할 때에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만 보아도 일제강점기의 의생·약종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생·약종상 수험서 및 면허 신청 관련 양식은 1933년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IV. 『제세보감』 방제구성의 특징

『제세보감』은 『방약합편』의 형식과 편제를 대부분 따랐기 때문에 『방약합편』과 비교하여 함께 언급해야 한다. 『방약합편』의 「활투처방」 467개의 방제 중에서 필요한 143개의 방제를 선별하고, 다른 서적에서 나머지 65개의 방제를 추가하여 「제세보감」 208개의 방제를 구성하였다. 『제세

15) 치병요혈이 목록에는 “主治要血七十餘血”로 기재되어 있다.

16) [通天: 左右鼻(의학입문), 左右臭(침구대성·제세보감)], [中脘: 痞滿爲翻胃(의학입문), 痞滿番胃(침구대성), 痞滿番胃(제세보감)], [氣海: 灸後(의학입문), 灸此後(침구대성·제세보감)], [合谷: 小兒急驚(의학입문), 小兒急驚風(침구대성·제세보감)]

17) 조양회. 『제4개정 일본약국방』. 東京: 朝陽會, 大正13. 1924.

보감』의 「수증용약목록」에는 208개의 방제를 증상에 따라 약 1286건 배치하였고, 그 중 591번은 『방약합편』과 동일하게, 575번은 다른 서적의 방제들의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두 서적의 방제를 비교해 본 결과 『제세보감』 방제구성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대체 방제 목록이 있다.

「제세보감」에 수록된 208개의 방제명 중에서 『방약합편·활투처방』과 일치하는 방제명은 143개로 68%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 「수증용약목록」 1286건 중에서 『방약합편·활투침선』과 동일 증상에 동일 방제를 활용한 횟수는 591차례로 의외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수증용약목록」에서 방제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대체 방제 목록이 있었기 때문으로, 『방약합편』에 활용된 방제에 대한 대체 방제로 기본방을 많이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방약합편』에서 정전가미이진탕·증미이진탕·가미이진탕·이진탕이 쓰인 증상에 대해 모두 이진탕으로 대체해서 썼고, 대승기탕·조위승기탕·도인승기탕·소승기탕이 쓰인 증상에 대해서는 모두 소승기탕으로 대체해서 썼다. 이런 관계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방약합편』과 『제세보감』의 동일 병증에 대한 대체 기본방 목록

『방약합편』	『제세보감』
이기거풍산	거풍산
가미귀비탕	귀비탕
천민도담탕(=천민탕)·궁신도담탕	도담탕
삼령백출산, 전씨백출산	백출산
인삼백호탕	백호탕
가미사칠탕	사칠탕
대승기탕·조위승기탕·도인승기탕	소승기탕
진사오령산, 인진오령산	오령산
가미온담탕	온담탕
행습유기산	유기산
십육미유기음	유기음
청서육화탕	육화탕
정전가미이진탕·증미이진탕·가미이진탕	이진탕
승양제습탕, 승양제습화혈탕	제습탕
조경중옥탕	중옥탕
반하백출천마탕	천마탕
대철기탕	철기탕
도씨평위산·향사평위산	평위산
황련해독탕	황련탕
팔물탕	사물탕

그리고 일부 방제는 기본방이 아닌 방제로 일괄되게 대체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생맥산은 그대로 쓰거나 가미생맥산으로 대체하였고, 성향정기산·곽향정기산·불환금정기산은 모두 불환금정기산으로 대체하였다.

표 3. 『방약합편』과 『제세보감』의 동일 병증에 대한 대체 방제 목록

『방약합편』	『제세보감』
생맥산	가미생맥산
이중탕, 부자이중탕	이중탕, 가미이중탕
성향정기산, 곽향정기산	불환금정기산
사물탕	사물탕, 사륙탕
서각소마탕	서각지황탕, 서각소독음, 승마갈근탕
인삼양영탕	인삼양위탕
인삼패독산, 소서패독산	형방패독산
육군자탕	향사육군자탕
도담탕	가미도담탕

2. 약제구성과 용량을 대부분 가감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세보감」의 전체 208개 방제 중에서 『방약합편·활투처방』과 동일한 명칭의 방제는 136개로 다수를 차지한다. 『방약합편』의 많은 부분을 따랐으므로 동일 방제명의 구성약제가 거의 같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비교를 진행하였다. 확인 결과 136개 방제 중 『방약합편·활투처방』의 구성 약제를 동일하게 쓴 경우는 단 23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감이 있었다. 가감이 없는 23가지 방제도 용량은 조금씩 증감하였다. 『방약합편』[중80]황련청심음과 『제세보감』[을21]황련청심음을 예를 들어 비교해보면, 방제명·효능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감초가 생략되고 향부자·창출이 가미되었다.

표 4. 『방약합편』과 『제세보감』 황련청심음 구성약제 비교

『방약합편』[중80] 황련청심음	『寶』 治君火動, 相火隨之而精泄. 黃連·生地黃·當歸·甘草·白茯苓·酸棗仁(炒)·遠志·人參·蓮肉 各等分.
『제세보감』[을21] 황련청심음	黃連·白茯苓 各三錢半, 香附子·生地黃·蒼朮 各二錢, 當歸·山棗仁·遠志·人參·蓮肉 各一錢. 君火動, 相火隨之而精泄.

『제세보감』이 다른 서적도 참고하였으므로 증상이나 복용법이 전혀 다른 방제도 있지만 방제명·효능 및 작용부위 등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면서 가감이 이뤄진 방제가 다수 존재한다. 동일 방제명에 대해 『제세보감』에서 가(加)한 빈

도가 가장 많은 약재 순으로 나열해 보면 향부자(15), 감초(14), 창출(12), 반하(10), 인삼(9), 황금(9), 단삼(8), 목통(8), 도인(8), 남성(7), 대황(7), 홍화(7), 소엽(7), 건갈(6), 목향(6), 백출(6), 강활(6), 진피(6)이고, 나머지는 5건 이하이다. 약재를 감(減)한 빈도가 높은 약재 순으로 보면 적복령(5), 지각(4), 인삼(3), 백복령(3), 건갈(2), 계심(2), 길경(2), 감초(2), 백작약(2), 진피(2)이고, 나머지는 1건 이하이다. 기존 방제에 약재를 가감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재량이고, 구성약재와의 작용효과가 관련되어 있다. 약재의 가감 빈도수는 저자의 약재 활용 경향을 알게 해주며, 저자가 『방약합편』을 중심으로 참고하여 저술을 하면서도 개인의 임상경험을 통해 방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서적의 방제들을 참고하였겠지만, 서문에서 “널리 모으고 깊이 탐구하여 혹은 소략히 하고 혹은 상세히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침구법 등을 덧붙여 책 하나를 만들어 『제세보감』이라 하였다”¹⁸⁾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저자의 임상경험이 유입되었다고 하겠다.

이 이상의 이야기는 방제학적으로 더 깊이 접근해야 하므로 여기까지 정리하기로 하고, 『방약합편·활투처방』과 『제세보감·제세보감감』 동일명 방제 가감(加減) 약재 비교표는 참고삼아 본고 말미에 표 5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3. 병증별로 추가된 주요 방제가 있다.

『제세보감』이 『방약합편』 외의 서적에서 가져온 방제는 65개 뿐이지만 「수증용약목록」 전반에 575차례 활용되었다. 「수증용약목록」에 추가 편성된 방제의 빈도수로만 보면 설리산이 29차례로 가장 많았고, 백출산(18), 오적산(18), 육미원(16), 만병고(16), 사륙탕(15), 오령산(15), 사물탕(14), 유풍단(14), 평위산(14), 만병환(13), 도인승기탕(12), 통맥환(12), 소산탕(11), 이진탕(11), 방풍통성산(10), 부창환(9), 소승기탕(9), 각기환(8), 이중탕(8), 퇴학환(8), 삽늑산(7), 소풍산(7), 육울탕(7), 익원산(7), 금수육군전(6), 보허탕(6), 시경반하탕(6), 지천산(6), 향사육군자전(6) 순이다. 나머지는 5차례 이하로 편성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이질·설사·산후 봉루·탈항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방제로는 설리산이 대변(19), 부인(4), 소아(4), 한(1)문에서 추

가되었다. 통증 치료에는 오적산을, 기병이나 유정에는 육미지황탕을 추가하는 등 공통점을 보이고, 적체나 창만의 증상에는 만병환이 積痢(6)·脹滿(3)·芻(1)·氣(1)·大便(1)·神(1)문에서 추가되었다. 11번 추가된 소산탕의 경우를 보면 전음(前陰)의 제반 증상(筋疝, 血疝, 氣疝, 狐疝, 癩疝, 奔豚疝, 劫藥, 偏墜, 陰冷, 囊腫, 痰痛, 臍腹)에 추가가 되어 있어 산증(疝症)의 통치방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창만(脹滿)과 부종(浮腫)에는 부창환을 추가했고, 대변(大便)과 관련된 질병에는 설리산과 함께 평위산(14)과 도인승기탕(12)도 추가하였다. 「수증용약목록」에 『방약합편·활투침선』에서 가져온 방제 이외로 추가된 방제별 병증 목록은 참고삼아 본고 말미에 표 6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V. 고찰 및 결론

본고에서 지금까지 『제세보감』의 편제 및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방약합편』과의 비교를 통해 본 서적에 제시된 방제구성이 지니는 특징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저자 문기홍의 생애가 역사적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세보감』 서문과 기사·비문·행략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는 의료인으로서 삶을 살아왔고 경험을 통한 임상 지식을 『제세보감』에 담았다.

『제세보감』은 1933년(제세당약방 출판소) 출간을 시작으로 1966년(행림서원), 1975년(행림서원) 세 차례 출간이 되었다. 세 판본은 내용과 구성이 거의 일치하고, 초간본에만 의생·약종상 수험서 및 면허 신청 관련 양식들이 첨부되어 6-7장의 차이가 있다. 『제세보감』은 크게 서문부·본문부·부록·수험서 및 각종 양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문부에는 「제세당문선생연구방」, 「경상구군 제세당 수비처 급비문」, 「제세당문선생행략」, 「제세보감서」, 「소지(小識)」, 「기사등서(記事謄書)」가 있다. 저자 문기홍에 대한 검증된 사료는 찾기 어려우나 서문부를 통해 그가 의생(醫生)·침술사(鍼術師)·제약사(製藥士)·약종상(藥種商)으로서 삶을 살아왔으며, 제세(濟世)에 뜻을 가진 의료인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본문부는 크게 「수증용약목록」과 「제세보감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세보감감」의 208개의 방제들이 「수증용약목

18) 문기홍. 『제세보감』 「서문」 “此博採深究, 或略或詳, 以加以減, 添入鍼灸等法, 乃成一冊, 曰濟世寶鑑.”

록」의 54개 조목·613개의 세부증상에 따라 1286건 배치되어 있고 뒤에 통치방이 실려 있다. 『방약합편』의 「활투침선」·「활투처방」 편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두 서적은 상당히 다르다. 우선 단을 구성하는 분류방법에서 「제세보감」은 「활투처방」의 보익(補益)·화해(和解)·공하(攻下)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분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가독성을 위해 단순 4단 구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세보감」은 방제마다 각각 구성약재·주치(主治)·가감방·제조/복용법·침구법을 제시하고 있다. 증상이나 계절에 따라 가감방을 많이 소개하였는데 사물탕·단삼사물탕·사륙탕·육미지황탕·팔물탕·팔진탕·십전대보탕처럼 기본방이 같은 방제인 경우에는 한 방제명 내에 모아서 기재함으로써 기본방과 변방(變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각 [방제명 : 침구법]을 1대 1로 대입해 놓은 점도 주목할 만한데 증상에 따라 침구법이 소개되어 있는 타 서적과 차별점을 보인다.

부록에는 침구 및 경혈에 도움이 될만한 서적의 일부를 발췌해 두었다. 「찰병요결」·「맥결」·「침구결」은 『찰병요결』·『의문보감』·『침구대성』·『사암도인침법요결』 등의 서적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부본맥이나 혈자리·사암유주·주치요혈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험서 및 각종 양식 앞부분에는 의생·약종상 수험서 「서양약용량(西洋藥用量)」, 「서약각종주사침법(西藥各種注射鍼法)」, 「약종상시험식」이 실려 있다. 뒤쪽에는 의생·약종상에 관련된 각종 양식이 실려 있는데 의생·약종상 면허에서부터 영업지역 변경까지 일일이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만큼 일제강점기의 의생·약종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수험서 및 각종 양식은 1933년본에만 첨부되어 있고 해방 이후로는 간행에서 빠졌다.

『방약합편』과의 비교는 방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제세보감」 208개의 방제명은 『방약합편』의 「활투처방」 467개의 방제 중에서 143개의 방제를 선별하고, 다른 서적에서 나머지 65개의 방제를 추가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 방제들이 「수증용약목록」에 1286차례 배치되어 있고, 그 중 591번은 『방약합편』과 동일하게, 575번은 다른 서적의 방제들을 참고하여 제시하고 있다. 비교를 통해 살펴본 『제세보감』의 방제구성의 특징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증용약목록」은 『방약합편·활투침선』의 동일 증상-동일 방제에 대한 대체 방제 목록이 있었고, 대체 방제

로는 기본방을 많이 활용하였다. 정전가미이진탕·증미이진탕·가미이진탕·이진탕은 모두 이진탕으로, 대승기탕·조위승기탕·도인승기탕·소승기탕은 모두 소승기탕으로 대체해서 썼다. 기본방이 아니더라도 일괄되게 대체된 방제가 보이는데 성향정기산·곽향정기산·불환금정기산은 모두 불환금정기산으로, 인삼패독산·소서패독산은 모두 형방패독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경향을 보인다.

둘째, 『방약합편·활투처방』과 일치하는 「제세보감」의 136개 방제는 방제명·효능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약제 구성과 용량은 대부분 가감되었다. 「활투처방」의 구성 약제를 동일하게 쓴 경우는 단 23가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감이 있었다. 가(加)한 빈도가 가장 많은 약제는 향부자(15)이고, 감(減)한 빈도가 높은 약제는 적복령(5)이다. 약제의 가감 빈도수는 저자 개인의 임상지식과 약제 활용 경향을 알게 해준다. 여러 한의서의 방제를 참고하였겠지만 서문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과정」을 언급하였듯이 『제세보감』에 상당 부분 저자의 임상 지식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병증별로 추가된 주요 방제가 있었다. 『방약합편』 이외의 서적에서 가져온 방제는 65개이며, 「수증용약목록」에는 575차례 추가되어 방제수 대비 많은 활용이 이루어졌다. 「수증용약목록」에 가장 많이 편성된 방제는 설리산(29)이다. 설리산은 이질·설사·산후 붓루·탈항 등의 증상에 추가되었다. 통증 치료에는 오적산을, 기병이나 유정에는 육미지황탕을, 적체나 창만의 증상에는 만병환을 추가했다. 소산탕의 경우 전음(前陰)의 제반 증상에 추가가 되어 산증(疝症)의 통치방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약제구성의 한계, 병의 형세와 치료방법의 변화가 저자의 용약 경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세보감』은 『방약합편』의 편제 구성을 따랐지만, 저자의 임상 기록이 집약된 새로운 실용 한의서라고 할 수 있다.

『제세보감』은 1933년부터 1975년에 이르기까지 근 40년이라는 시간동안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기를 거쳐 출간된 서적으로 같은 시기를 살다간 의료인에게는 임상한의서였을 것이고,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가정 의학 서였을 것이며, 의생 및 약종상 시험을 봐야 했거나 관련 허가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참고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세보감』은 저자에 대한 부족한 역사적 사료들, 일제강점기에 출간된 한의서에 대한 연구의 한계로 인해 그간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한계에도 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서적과 인물에 대한 연구를 시기적으로 더 늦출 수는 없다. 구한말의 서적을 통사적으로 한꺼번에 훑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빠진 곳을 메우듯 한권의 의서와 한 인물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작업이 훗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감사의 말씀

본고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고문헌 기반 『한의고전지식 DB서비스』 개발(K16670)’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문헌

1. 문기홍 저. 『제세보감』. 제세당약방. 초간본(1933)
2. 문기홍 저. 『제세보감』. 서울:행림서원. 1966.
3. 문기홍 저. 『제세보감』. 서울:행림서원. 1975.
4. 문기홍 저. 『大同文廟創建詩集』. 발행미상. 1937.
5. 문기홍 저. 구현희, 오준호 역. 『국역 제세보감』. ebook.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6.
6. 이천. 『의학입문』. 上海:掃葉山房. 1575.
7. 황도연. 『신증증맥방약합편』. 1918.
8. 양계주. 『침구대성』. 1601.
9. 조양희. 『제4개정 일본약국방』. 東京:朝陽會, 大正13. 1924.
10. 김남일. 『근현대 한의학 인물 실록』. 과주:들녘. 2011.

11.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과주:들녘. 2014.
12. (1924.04.08) “자선 활불(活佛)의 문의생(文醫生)” 每日申報 04면 04단.
13. (1935.01.01) “한방의학부흥론에 대하여” 東洋醫藥 제1호.
14. (2006.10.13) “찰병요결”, 민족의학신문 고의서산책 309호.
15. (2007.07.27) “제세보감 - 頌德碑에 기록된 仁術遍歷” 민족의학신문 623호 고의서산책 346호.
16. 구현희. 「일제강점기 언해의서 『단방비요경험신편』 연구」. 한국사학회지. 2016;29(1):89-101.
17. 김남일. 「의서의 간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의사학. 2006;15(1):77.
18. 박운재. 「일제의 한의학정책과 조선지배」. 대한사학회. 2008;17(1):75-86
19. 박운재. 「日帝下 私立 避病院 設立運動 研究」. 한국문화. 2002;30:333-370.
20. 박운재. 「해방후 한의학의 재건과 한의사제도의 성립」. 동방학지. 2011;154:345-376.
21.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동방학지. 2011;154:345-376.
22. 양정필. 「한말-일제초 근대적 약업 환경과 한약업자의 대응」. 의사학. 2006;15(2):189-209.
23. 정우열. 「한의학 100년 역사」. 의사학. 1999;8(2):173-192.
24. 정유용. 「사암침법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 석사논문. 2010.
25. 정지훈. 「한의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한국사학회지. 2001;17(1):207-215.
26.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문보감 해제정보” 한의고전명저총서(2016.09)

표 5. 『방약합편·활투처방』과 『제세보감·제세보감감』 동일명 방제 가감(加減) 약재 비교

방제명	감(減)한 약재		가(加)한 약재	
대금음자	-		+	葛花
대승기탕	-		+	甘草
오령산	-		+	羌活, 防風
소속명탕	-		+	羌活, 木瓜, 獨活
불환금정기산	-		+	羌活, 蘇葉, 白芷, 大腹皮, 防風, 桔梗, 白茯苓
황금작약탕	-		+	乾葛, 人參, 白朮
시령탕	-		+	乾葛, 黃芩
수점산	-		+	苦練根, 白茯苓, 香附子, 蒼朮, 半夏, 甘草
소침환	-		+	藿香, 丁香, 白朮, 砂仁, 紫蘇葉, 橘皮, 膽南星, 甘草
향유산	-		+	藿香, 陳皮
소합향환	-		+	官桂, 麝香
인삼양위탕	-		+	桔梗, 枳殼, 蘇葉

여신탕	-	+	金毛狗脊, 南星, 半夏, 桃仁, 木通, 紅花, 甘草
진교창출탕	-	+	南星, 槐花, 赤芍藥, 樗根皮, 生地黄, 甘草
추기산	-	+	南星, 半夏, 桃仁, 白芥子, 大黃, 紅花, 生地黄
보허탕	-	+	丹參
생혈윤부음	-	+	丹參
서각지황탕	-	+	當歸, 香附子, 川芎, 桃仁
삼호작약탕	-	+	大黃, 石膏
쌍화탕	-	+	菟絲子, 五味子, 乾薑
축천환	-	+	菟絲子, 肉蓯蓉, 人參, 山藥
소삼소음	-	+	桃仁, 當歸尾, 赤芍藥, 紅花
당귀승기탕	-	+	桃仁, 巴豆
통순산	-	+	獨活, 大黃
산호자금고	-	+	靈砂
통유산	-	+	木通, 牛旁子, 瓜蒌仁
자운탕	-	+	木通, 車前子
육울탕	-	+	木香
삼소음	-	+	木香
서경탕	-	+	半夏, 南星, 紅花
대강활탕	-	+	防風
거원전	-	+	白伏苓, 當歸, 熟地黄, 香附子, 赤芍藥
구미청심원	-	+	白伏神
익위승양탕	-	+	砂仁
평위산	-	+	山查肉, 香附子, 神麩, 麥芽, 砂仁
청대산	-	+	桑白皮
생맥산	-	+	石膏, 知母
시호사물탕	-	+	蘇木
갈근해기탕	-	+	蘇葉
구미강활탕	-	+	蘇葉
시평탕	-	+	蘇葉, 當山, 草果
신력탕	-	+	熟地黄, 生薑
녹포탕	-	+	升麻
소풍활혈탕	-	+	升麻, 獨活
서각소독음	-	+	升麻, 柴胡, 金銀花, 葛根, 玄參
이중탕	-	+	柴胡, 陳皮, 青皮, 半夏, 黃芩, 甘草
난간전	-	+	罌粟殼
도체탕	-	+	鴉粟殼
소건중탕	-	+	罌粟殼, 小茴香, 吳茱萸
신효과루산	-	+	牛旁子, 金銀花, 天花粉
대조환	-	+	肉蓯蓉
대시호탕	-	+	人參, 甘草
사역탕	-	+	人參, 羌活, 川芎
당귀육황탕	-	+	人參, 桂枝, 甘草
이음전	-	+	人參, 附子
백호탕	-	+	人參, 竹茹, 粳米
맥탕산	-	+	紫草, 丹參
보원탕	-	+	紫草茸, 丹參
포룡환	-	+	紫草茸, 眞珠, 琥珀, 天麻, 麻黃, 牛黃, 金箔
장원탕	-	+	猪苓, 澤瀉, 木通
사궁산	-	+	赤芍藥, 當歸, 生地黄, 桃仁, 甘草
칠기탕	-	+	蒼朮, 香附子
사칠탕	-	+	蒼朮, 香附子, 蘇子, 甘草
회생산	-	+	蒼朮, 香薷, 苦練根, 厚朴, 半夏, 丁香, 甘草
달생산	-	+	川芎, 丹參

선유량탕	-		+	川椒, 大棗, 甘草
이어탕	-		+	澤瀉, 木通, 丹蔘, 黃芩, 白扁豆
교애궁귀탕	-		+	香附子
궁귀탕	-		+	香附子, 白朮, 艾葉, 砂仁
대영전	-		+	香附子, 益母草, 白芍藥
청화보음전	-		+	香附子, 蒼朮, 竹瀝
목유산	-		+	香薷, 藿香, 蒼朮, 厚朴, 丁香
익원산	-		+	香薷, 白扁豆, 乾葛, 黃連
진사익원산	-		+	香薷, 白扁豆, 乾葛, 黃連
작약감초탕	-		+	胡黃連, 使君子, 人蔘, 黃連, 山查肉, 白朮
사백산	-		+	黃芩, 桅子, 桔梗, 薄荷, 知母, 麥門冬, 生地黄, 貝母
여택통기탕	-		+	黃芩, 荊芥
궁귀보혈탕	-		+	黃芪, 杜沖, 白芍藥, 阿膠珠, 五味子, 木香, 人蔘
불수산	-		+	黃芪, 蘇葉
황련청심음	-	甘草	+	香附子, 蒼朮
반충산	-	甘草, 蓬朮, 白茯苓	+	沙蔘, 川練子, 小茴香, 白朮, 吳茱萸, 白芍藥, 葱
평위지유탕	-	乾葛, 陳皮	+	木通
시경반하탕	-	瓜蒌仁	+	玄胡索, 桃仁, 南星, 白芥子, 生地黄, 紅花, 薑三.
방풍통성산	-	桔梗	+	桂枝
오약순기산	-	桔梗	+	南星, 木香
용담사간탕	-	當歸	+	蛇床子
청심연자음	-	麥門冬	+	豬苓, 澤瀉, 木通
조경산	-	半夏	+	香附子, 丹蔘
추풍거담탕	-	防風	+	大黃, 白伏神, 川烏, 甘遂, 白芥子
금수육군전	-	白芥子	+	貝母, 杏仁, 桑白皮, 五味子
비아환	-	白茯苓	+	蓬朮, 苦練根, 檳榔
궁소산	-	白芍藥, 乾葛	+	柴胡, 乾葛, 羌活, 赤茯苓
귀출과징탕	-	白芍藥, 烏藥, 紅花, 官桂	+	蒼朮, 丹蔘, 大黃, 木通
사물안신탕	-	生地黄	+	半夏, 陳皮, 甘草
독활기생탕	-	細辛	+	葳靈仙, 蒼朮, 羌活, 赤芍藥
소자강기탕	-	蘇子, 陳皮	+	蒼朮, 香附子, 橘皮, 木香
형방패독산	-	人蔘	+	薄荷, 細辛
소풍탕	-	人蔘, 白僵蠶	+	細茶
소풍산	-	人蔘, 白茯苓	+	
육화탕	-	赤茯苓	+	陳皮, 吳茱萸
청서육화탕	-	赤茯苓	+	陳皮, 吳茱萸
우공산	-	赤茯苓	+	澤瀉, 白朮, 黃芩
단분환	-	鍾乳粉, 琥珀	+	中朱砂, 沒藥, 血竭, 胡桐淚, 片, 腦, 龍腦, 麝香, 穿山甲
감길탕	-	枳殼	+	玄蔘, 香附子, 蒼朮, 黃芩, 鼠目太
도담군자탕	-	枳殼, 赤茯苓	+	蘇子, 大黃
도담탕	-	枳殼, 赤茯苓	+	蘇子, 大黃
비화음	-	陳倉米	+	天門冬, 白芍藥, 五味子, 黃芪, 半夏, 杏仁, 丁香, 白豆蔻
팔정산	-	車前子	+	半夏, 陳皮
이향산	-	蒼朮	+	蘇葉
기침산	-	川芎, 桂心, 蒲黃	+	牡丹, 桃仁, 蘇木, 紅花, 甘草
곤담환	-	沈香	+	川烏, 甘遂, 半夏, 南星, 白芥子, 香附子, 木香
강활유평탕	-	黃芪, 枳殼, 肉桂, 姜	+	紅花, 枳實, 桂皮, 薑

표 6. 『제세보감·수증용약목록』에 『방약합편·활투침선』 이외로 추가된 방제별 병증 목록

6건 이상 추가된 방제명 (환·탕·산 등 포함)	조목	회수	세부 병증	6건 이상 추가된 방제명 (환·탕·산 등 포함)	조목	회수	세부 병증	
설리산 (29)	大便	19	濕泄, 寒泄, 暑泄, 虛泄, 滑泄, 酒傷 晨泄, 飧泄, 脾腎泄, 赤痢, 赤白痢, 噤口痢, 休息痢, 風痢, 寒痢, 濕痢, 虛痢, 腹痛痢, 通痢, 二便閉	평위산 (14)	大便	6	濕泄, 風泄, 飧泄, 脾腎泄, 熱痢, 氣 痢, 內傷	
	婦人	4	崩漏, 子痢, 血崩, 泄痢		內傷	4	宿滯, 脾虛, 酒傷, 調補	
	小兒	4	泄痢, 泄瀉, 泄瀉, 痢疾		婦人	1	食滯	
	寒	1	虛利		暑	1	暑滯	
	後陰	1	脫肛		脹滿	1	熱脹	
					後陰	1	日久	
백출산 (18)	大便	10	滯泄, 寒泄, 暑泄, 風泄, 滑泄, 酒傷 晨泄, 脾腎泄, 虛痢, 積痢, 久痢	도인 승기탕 (12)	大便	7	濕泄, 赤痢, 赤白痢, 噤口痢, 風痢, 熱痢, 熱閉	
	小兒	3	驚風, 泄痢, 收醫		痰飲	1	痰塊	
	內傷	2	脾虛, 補益		婦人	1	便秘	
	婦人	2	崩漏, 孕婦轉呼		牙齒	1	漱藥	
	胸	1	食痛		脹滿	1	氣脹	
					血	1		
오적산 (18)	腰	3	腎虛痛, 痰痛, 風痛	통맥환 (12)	足	6	風濕, 濕滯, 衝上, 通治, 鶴膝風, 麻痺	
	積聚	3	食積, 魚蟹積, 水積		手	2	氣滯臂痛, 痰滯臂痛	
	大便	2	飧泄, 積痢		濕	1	濕痺	
	腹	2	寒痛, 通治		風	1	歷節風	
	蟲	2	蛔厥, 胸痛		皮	1	氣虛麻木	
	嘔吐	1	反胃		脇	1	氣痛	
	氣	1	氣痛	소산탕 (11)	前陰	11	筋疝, 血疝, 氣疝, 狐疝, 癩疝, 奔豚疝, 劫藥, 偏墜, 陰冷, 囊腫, 痰痛, 臍腹	
	內傷	1	宿滯		이진탕 (11)	癰疽	2	痰盛, 附骨疽
	前陰	1	劫藥			胸	2	痰痛, 水結胸
	脇	1	兩脇痛			嘔吐	1	噎膈
胸	1	胸痞	內傷	1		宿滯		
			痰飲	1		痰厥		
			頭	1		痰暈		
육미 지황탕 (16)	精	3	固精, 濕痰, 脊熱遺精	방풍 통성산 (10)	神	1	驚悸	
	氣	2	短氣, 小氣		風	2	大風, 鼻頭	
	痰飲	1	熱痰		大便	1	氣結閉	
	大便	1	老人秘		頭	1	頭風	
	暑	1	伏暑		婦人	1	風痊	
	消渴	1	通治		浮腫	1	通治	
	小便	1	不禁		小兒	1	孕麻	
	腰	1	腎虛痛		濕	1	通治	
	耳	1	耳聾		牙齒	1	風熱痛	
	燥	1	通治		諸瘡	1	諸瘡	
咳嗽	1	血嗽	만병고 (16)	脹滿	5	血脹, 寒脹, 熱脹, 蟲脹, 濁氣, 浮腫		
虛勞	1	肝虛		浮腫	4	暑腫, 浮腫		
火	1	陰虛惡寒		소승기탕 (9)	口舌	2	肺熱口辛, 肝熱口苦	
					胸	2	血痛, 悸痛	
					腹	1	血痛	
					足	1	四氣流注	
			皮		1	癰疹		
			脇		1	實痛		
사륙탕 (15)	血	3	九竅出血, 通治					
	痰喘	2	陰虛喘, 哮喘					
	小便	2	小兒遺尿, 通治					

	咳嗽	2	乾嗽, 肺脹肺痿	각기환 (8)	後陰	1	腸熱	
	足	1	鶴膝風		足	7	濕熱脚氣, 風濕, 寒濕, 衝上, 通治, 鶴膝風, 麻痺	
	皮	1	陰症發癩=癩		皮	1	麻木	
	面	1	陰虛面浮		前陰	2	瘡疔, 偏墜	
	聲音	1	色傷		瘡疾	2	少陽, 久瘡	
	耳	1	聾膿		內傷	1	冷滯	
	咽喉	1	陰虛格陽		腹	1	寒痛	
오령산 (15)	婦人	3	孕婦轉浮, 浮腫, 夜啼, 氣脹, 血脹, 寒脹	이중탕 (8)	小兒	1	泄瀉	
	浮腫	2	瘡腫, 通治		蟲	1	胸痛	
	暑	1	煩渴		퇴학환 (8)	瘡疾	7	陽明, 食瘧, 暑瘧, 勞瘧, 久瘧, 瘴瘧, 通治
	消渴	1	預防癰疽			邪祟	1	通治, 固精, 脊熱遺精, 白淫
	小兒	1	諸熱			小便	2	氣虛尿, 不禁
	前陰	1	濕痒		삼늑산 (7)	婦人	1	遺尿
	足	1	濕滯			身形	1	老人尿數
寒	1	煩燥	面	3		面熱, 面寒, 風熱		
만병환 (14)	黃疸	1	女疸, 保產, 子癩	소풍산 (7)	婦人	1	血暈	
	積聚	5	六鬱, 食積, 酒積, 魚蟹積, 積聚, 冷積		鼻	1	鼻痔鼻瘡	
	脹滿	3	穀脹, 蟲脹, 濁氣		眼	1	眼疼	
	胸	1	冷痛		耳	1	聾膿	
	神	1	癩癩		氣	4	九氣, 氣滯, 氣痛, 氣鬱	
	大便	1	積痢		육울탕 (7)	大便	1	氣痢
	氣	1	通治			浮腫	1	腫喘
사물탕 (14)	咳嗽	2	肺實, 酒嗽久嗽	익원산 (7)	胸	1	七情痛	
	痰飲	1	熱痰		暑	2	補氣, 伏暑	
	痰喘	1	咳逆		大便	1	濕泄	
	大便	1	氣結閉		消渴	1	下消	
	小兒	1	喘嗽		小兒	1	煩渴	
	眼	1	外障		寒	1	煩熱	
	腰	1	食痛		血	1	尿血	
	乳	1	下乳		금수 육군전 (6)	痰喘	3	氣喘, 哮喘, 咳逆
	足	1	寒濕			咳嗽	2	寒嗽, 水咳
	風	1	調氣			小兒	1	喘嗽
유평단 (14)	火	1	積熱	보허탕 (6)	婦人	5	血暈, 不語, 陰脫, 鬱冒, 遺尿	
	風	4	大風, 風		聲音	1	產後	
	眼	3	外障, 眼	시경 반하탕 (6)	脇	3	左痛, 右痛, 兩脇痛	
	頭	1	頭生白屑		寒	2	痞氣, 結胸	
	婦人	1	崩漏		胸	1	胸痞	
	鼻	1	鼻淵·鼻鼽	지천산 (6)	咳嗽	5	勞嗽, 鬱嗽, 火嗽, 肺脹肺痿, 夜嗽	
	手	1	痰滯臂痛		嘔吐	1	惡心	
	腰	1	挫閃	향사 육군자탕 (6)	內傷	4	吞酸, 久熱, 嘈雜, 調補	
	足	1	麻痺		嘔吐	1	噎膈	
	皮	1	氣虛麻木		虛勞	1	脾虛	